

보도시점 : 2025. 5. 25.(일) 11:00 이후(5. 26.(월) 조간) / 배포 : 2025. 5. 23.(금)

K-드론 재난 현장 신속 대응, 소방·공항안전 AI드론 개발 나선다

- 고중량 소방드론·공항 조류대응 AI드론 개발에 100억 원 투입... 26일부터 공모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가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, 공항 조류로부터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 소방·조류 드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.
 - 고중량 소방 드론과 공항 조류퇴치용 AI드론 개발에 총 100억 원이 투입되며,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실증과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
- 최근 초대형·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. 특히, 야간에 헬기 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 잔불진화 등에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중량(100kg 이상) 탑재가 가능한 소방특화 드론 개발을 추진한다.
 -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AI 기반의 군집 드론기술을 적용한 조류대응 드론시스템을 개발하고, 공항 안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.
- 소방특화 고중량 드론 개발을 위해 '25~'27년까지 총 1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, 이중 올해에만 7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. 외국에서 상용화된 고중량 드론을 우선 도입하고, 이를 기반으로 국산화 기술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.
 - 이 사업을 통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중량 드론은 향후 관계 부처 현장 실증을 실시하고, 국토부 기체 인증을 거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.

- 공항 조류대응 AI드론은 '25~'26년까지 총 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, 올해 공모를 통해 3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개발을 시작한다.
 - 개발되는 드론은 공항 주변 4km 이내의 조류를 탐지하고, 조류 활동 패턴을 분석해 감지·추적·퇴치가 가능한 다수의 군집 비행이 가능한 형태로 구현될 예정이다.
 - 또한, 드론에는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으며, 레이더 및 영상 인식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AI 알고리즘을 통해 조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.
- 이번 사업은 항공안전기술원(원장 황호원) 주관으로 진행되는 「드론 상용화 지원사업」 공모를 통해 추진한다.
 - 공고는 5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, 이후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,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.
 - 자세한 사항은 ‘드론정보포털(www.droneportal.or.kr)’ 누리집에서 5월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.
- 국토교통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“최근 발생한 여러 재난 상황에서 활용될 드론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”면서,
 - “첨단 기술이 적용된 소방드론과 공항 조류대응 AI드론 개발을 통해 국민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, K-드론 국산화 기술개발을 통해 드론산업 활성화도 도모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	책임자	과 장	김기훈 (044-201-4307)
		담당자	서기관	박정권 (044-201-4206)
		담당자	주무관	손달현 (044-201-4241)

